

문화재청 공고 제2019-29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 10. 29.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8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 살만행수능엄경 권1~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 薩萬行首楞嚴經 卷一~二)	2권 1책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2	지리전서동림조담 (地理全書洞林照瞻)	2권 1책	조**·조** 조**·조**
3	백자 청화매죽문 항아리 (白磁 靑畫梅鳥竹文 壺)	1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박물관)
4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2점	국 유 (국립김해박물관)
5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陝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4점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6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陝川 玉田 二十八號墳 出土 金製耳飾)	1쌍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7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 (陝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	1쌍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8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陝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	1쌍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mailto: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一二)

- 명 칭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一二)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137-48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38.2 × 가로 22.5cm 내외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조성연대 : 1401년(태종 1) 판각, 15세기 인출 추정
- 사 유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대승불교(大乘佛教)에서 중요시하는 경전(經典)의 하나로서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지정 예고 대상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이하 능엄경 권1~2)는 총 10권으로 구성된 내용 중 권1~2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태상왕(太上王)으로 있던 태조 이성계가 승려 신충(信聰)에게 대자(大字)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태종 1)년에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최초 판각된 이후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이나, 기 보물 지정된 동일 판본(보물 제759호)의 일부 결락된 장수(張數)를 보완해 주고 본문 좌측에 일(一), 이(二) 등 본문 해석을 돕기 위한 석독구결(釋讀口訣)의 사례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구결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5세기 말까지 사용된 반치음(ㄹ)과 옛이음(◌) 등의 목서 기록은 이 자료의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교정 흔적은 간경도감(刊經都監) 인쇄본 간행을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어 늦어도 15세기 무렵 인쇄된 것임을 추측케 한다.

이 ‘능엄경 권1~2’는 조선의 독자적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 및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

- 명 칭 :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
- 소유자 : 조\*\*·조\*\*·조\*\*·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세로 26.4 × 가로 15.3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숙활자(癸未中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추정(태종연간, 1400~1418)
- 사 유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은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陰陽科)의 시험 과목 중의 하나로 널리 이용된 풍수지리서로, 중국 오대(五代) 사람인 범월봉(范越鳳)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지리전서동림조담’이 일부 주술적 요소가 섞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여 중국에서는 주희(朱熹) 등 송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은 반면, 조선에서 과시(科試)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고유의 풍수관(風水觀)을 성립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는 ‘지리전서동림조담’을 통해 조선에서 풍수리지가 역사적·문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지정 예고 대상은 상·하권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는 변괘편(變卦篇), 천성편(天星篇), 납갑편(納甲篇), 용호편(龍虎篇), 혈맥편(血脈篇), 명당편(明堂篇), 사신편(四神篇), 주객편(主客篇) 등 8편이 수록되었고 하권에는 근안편(近按篇), 원조편(遠朝篇), 수구편(水口篇), 풍입편(風入篇), 응룡편(應龍篇), 제혈편(裁穴篇), 절수편(折水篇), 악석편(惡石篇), 개지편(開地篇), 흉기편(凶忌篇), 도로편(道路篇), 오음편(五音篇), 오행편(五行篇), 복분편(覆墳篇) 등 14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재미중자(癸未中字)로 주석은 재미소자(癸未小字)로 인쇄하였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기(刊記)가 없어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재미중자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태종 연간(1400~1418)에

는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과시의 경우 문·무과와 생원·진사 선발 시험[사마과 司馬科]의 수험서라 할 수 있는 유학서적이 상당수 간행된 데 비해, 잡과(雜果)의 풍수서는 수험생이 적어 많이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래본도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지정 예고 대상 '지리전서동림조담'은 간행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기에 사용된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인쇄되었다는 점, 조선시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풍수지리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서지학적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 백자 청화매조죽문 향아리(白磁 靑畫梅鳥竹文 壺)

- 명 칭 : 백자 청화매조죽문 향아리(白磁 靑畫梅鳥竹文 壺)
- 소유자(관리자) : 이화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로 5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27.8cm, 몸체지름 24cm, 입지름 10.3cm, 밑지름 15.5cm
- 재 질 : 도자기
- 형 식 : 백자입호(白磁立壺)
- 조성연대 : 조선 15~16세기
- 사 유

‘백자 청화매조죽문 향아리(白磁 靑畫梅鳥竹文 壺)’는 뚜껑이 있는 입호형 향아리 형태로, 도자기 겉면에 매화(梅)·새(鳥)·대나무(竹)로 구성된 문양을 청화안료로 그린 조선 전기의 청화백자이다. 이와 동일한 양식의 청화백자는 사용계층이 한정되었고 제작 또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래 수량이 많지 않다.

매화를 화면에 크게 배치해 전반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다양한 동작의 새를 표현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양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마치 먹의 농담을 활용하듯 청화안료의 색조와 농담을 잘 살려내 작품의 품격을 높였다. 문양 소재를 다양한 농담(濃淡)으로 표현하였고 회화적 수준을 볼 때 도화서(圖畫署)의 화원(畫員)이 참여한 조선시대 관요산(官窯産) 백자로 추정된다.

지정 예고 대상 도자기는 형태와 문양 등에서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향아리(白磁 靑畫梅鳥竹文 壺)’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백자의 태토와 문양을 장식한 기량 등이 거의 흡사하다.

특히, 코발트가 주성분인 두 가지의 안료를 사용한 점은 백자 가마터에서 거의 유사한 기법이 적용된 시험 번조편(燻造片)이 발견된 사례를 감안할 때, 앞으로 조선 전기 청화백자의 제작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동체의 위, 아래 부분과 굽바닥 등에 일부 균열이 있지만, 제작 당시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 명 칭 :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咸安 馬甲塚 出土 馬甲 및 環頭大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2점(말갑옷 1점, 고리자루 큰 칼 1점)
- 규 격 : ① 말갑옷 : 전체 길이 226~230cm, 폭 43~48cm.  
② 고리자루 큰 칼 : 전체 길이 89cm 도신 폭: 4cm 도신 길이: 66.5cm
- 재 질 : ① 말갑옷 : 철 ② 고리자루 큰 칼 : 철, 금, 은
- 조성연대 : 가야 5세기
- 사 유

함안 마갑총은 1992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고분으로, 목곽분 발굴 중 말갑옷 1점과 고리자루 큰 칼 1점이 출토되었다. 이 두 유물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함께 출토된 여러 유물들을 통해 5세기 아라가야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철제 말갑옷은 말머리를 가리는 투구, 목과 가슴을 가리는 경흉갑(頸胸甲, 목가슴드리개), 말의 몸을 가리는 신갑(身甲)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었다. 말갑옷은 그동안 여러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적이 있으나 원형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희귀성이 있다.

말갑옷과 고리자루 큰 칼[환두대도環頭大刀] 모두 피장자의 좌우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가야시대 매장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을 단조하거나 철제 위에 상갑(象嵌)과 타출(打出)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야인들의 철 조련 및 공예기법 수준, 조형적 감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어 예술적·기술적 가치도 탁월하다.

‘합천 마갑총 출토 말갑옷과 고리자루 큰 칼’은 동북아시아에서 철제 무구와 중장기병 전술이 확산되는 양상과 높은 수준의 철기 제작기술이 개발되고 교류된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유물의 희소성과 완전성 등에서 역사적·학술적·기술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다.

□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陝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 명 칭 :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陝川 玉田 M3號墳 出土 環頭大刀 一括)
- 소재지 : 1점씩 3개처로 나누어 보관
- 수 량 : 4점

【개별현황】

연번	세부명칭	소유지(관리자)	소재지	수 량	규격
1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빙고로137 국립중앙박물관	1점	전체 길이 826cm 도신장 65cm 도신 폭 29cm
2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김해박물관	1점	전체 길이 81cm 도신장 64cm 도신 폭 33cm
3	봉황문 고리자루 큰 칼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박물관	1점	전체 길이 1131cm 도신장 908cm 도 신폭 39cm
4	용문 고리자루 큰 칼	국 유 (국립진주박물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박물관	1점	전체 길이 822cm 도신장 641cm 도 신폭 38cm

- 재 질 : 금, 은, 철
- 조성연대 : 가야 5세기
- 사 유

합천 옥전 고분군은 고령 가라국과 함께 대가야 연맹의 양대 축인 다라국(多羅國)의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공동묘역으로, 이 중 합천 옥전 M3호분은 1987년~1988년 동안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옥전 M3호분은 규모가 크고 도굴되지 않아 당시 최고 수장(首將)의 묘제(墓制)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양의 토기류와 철기류(무기, 마구 갑주, 농공구 등), 유리장신구류와 고리자루 큰 칼이 출토

되어 가야는 물론 동북아시아 고고학 및 고대사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대가야식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자루 부분을 다양하게 장식하고, 손잡이와 칼 몸통 등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표현해 삼국시대 고리자루 큰 칼 중 제작기술, 형태 등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 고분에서 일괄 출토된 ‘고리자루 큰 칼’ 4점은 모두 용봉문(龍鳳文)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섬세한 금속공예 기법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 알려진 삼국시대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은 40점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 면에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의 가치를 능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출토지가 분명하고 보존 상태와 조형적 아름다움 등 모든 면에서 이 칼들은 삼국시대 금속공예의 대표작으로 꼽을 만하다.

특히,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 중인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의 경우 손잡이 부분에 가는 은선(銀線)으로 전체를 감은 후, 그 위에 매우 얇은 금박을 붙인 흔적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은선과 금선(金線)을 따로 말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은선 위에 금박을 붙인 것으로 보아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로 알려진 ‘금부(金鈸)’ 기법일 가능성이 높다.

‘합천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은 가야 최고 지배층의 장묘(葬墓) 문화와 전통공예의 역사를 잘 보여준다는 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대사,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陝川 玉田 28號墳 出土 金製耳飾)**

- 명 칭 :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陝川 玉田 二十八號墳 出土 金製耳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진주박물관)
- 소 재 지 : 1점씩 2개처에 나누어 보관

- ① 1점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35 국립진주박물관
- ② 1점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쌍
- 규 격 : 전체 길이 10cm 내외. 무게 11.8g(진주박)/11.85g(경상대)
  - ① 국립진주박물관 보관품: 주환 크기 25.9x23.2mm. 가장 긴 수하식 길이 59.4mm
  - ② 경상대학교박물관 보관품: 주환 크기 25.4x23.0mm. 가장 긴 수하식 길이 61.2mm

- 재 질 : 금
- 형 식 : 세환이식(細環耳飾)
- 조성연대 : 가야 5세기

○ 사 유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85년~1986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공반(共伴) 유물이 확실하고 가야 금귀걸이의 원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특히 현존하는 가야시대 긴 사슬 장식 금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뛰어난 금속공예품이다.

제작 기법을 보면, 이 금귀걸이는 사슬고리나 S자 금판고리를 연결하여 긴 사슬[장쇄식長鎖式]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백제나 신라 금귀걸이와 구별되는 기술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야 귀걸이는 세환식(細環式) 주고리 아래에 수하식(垂下飾) 1줄을 매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귀걸이는 3줄을 매달고 속이 빈 둥근 공모양의 중간식과 그 아래로 속이 빈 원추형과 심엽형(心葉形) 장식을 매달아 화려하다는 점에서 예술적인 가치 또한 높다. 이 귀걸이와 유사한 형식의 금귀걸이들은 대체로 5세기 가야 문화권에서 유행했으며 5세기 후반~6세기에는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일본에서도 가야 귀걸이와 유사한 형태의 귀걸이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가야 5세기 금귀걸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일본에 영향을 미친 당시 금속공예의 수준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정식 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출토지가 확실하다는 점, 한 쌍이 완전히 남아 있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점, 학술적·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陝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

- 명 칭 :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陝川 玉田 M4號墳 出土 金製耳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진주박물관)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수 량 : 1쌍
- 규 격 : ① (좌) 전체길이 8.6cm. 무게 34.2g.  
           주환 크기: 28.9×25.8mm 산치자형 기본판: 길이 25.1mm 폭 15.7mm  
           ② (우) 전체 길이 10.1cm. 무게 35.3g.  
           주환 크기: 28.9×26.4mm 산치자형 기본판: 길이 24.6mm 폭 15.7mm
- 재 질 : 금
- 형 식 : 세환이식(細環耳飾)
- 조성연대 : 가야 6세기
- 사 유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경상대학교 박물관이 1991년 7월 22일~10월 19일까지 발굴한 옥전 M4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좌·후 한 쌍이 온전히 남아 있고 피장자가 착용했던 위치에서 발견되어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가야 귀걸이의 일반적 특징인 세환이식(細環耳飾)으로, 중간식 1단에 속이 빈 공모양 장식을 달았고, 중간식 2단에는 작은 고리에 심엽형(心葉形) 장식을 달았으며, 수하식(垂下飾)으로 입체적인 산치자형 장식이 매달린 형식으로 합천과 창녕 지역에서 주로 발굴된 가야 귀걸이와 상통한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수하식에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하는 세립세공기법(細粒細工技法, granulation), 금선으로 형태를 만들거나 장식하는 세선세공기법(細線細工技法, filigree), 그리고 금판을 두드려서 요철을 만들어 형태를 만드는 타출기법(打出技法, repousee) 등 다양하고 수준높은 금속공예기법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가야시대 금속세공기술이 매우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6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합천 지역의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으로서, 가야 귀걸이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누금세공기법과 타출기법이 모두 다 사용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출토지가 명확하고 가야 귀걸이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삼국시대 금속공예품을 비교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陝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

- 명 칭 :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陝川 玉田 M6號墳 出土 金製耳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진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쌍
  - 규 격 : 전체 길이 7.7cm 내외, 무게 1점 20.44g  
           ① (좌) 주환 크기 : 24.0×22.8mm. 산치자형 기본판 : 길이 17.9mm. 폭 12.6mm.  
           ② (우) 주환 크기 : 25.4×23.0mm. 산치자형 기본판 : 길이 18.1mm. 폭 13.1mm.
  - 재 질 : 금
  - 형 식 : 세환이식(細環耳飾)
  - 조성연대 : 가야 6세기
  - 사 유
-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 한 쌍은 1991년~1992년까지 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옥전 M6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목곽(木槨)의 남쪽에 놓인 무덤 주인공의 머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옥전 M6호분은 규모가 큰 중형급 무덤으로, 보관(寶冠), 목걸이, 귀걸이, 고리자루 큰 칼, 화살통, 장식마구(馬具) 등이 함께 출토되어 옥전지역 고분 중에서도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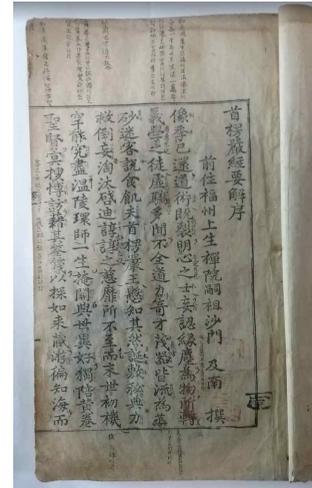
발굴 지역과 위치 및 공반(共伴) 유물이 확실해 고고학적 맥락이 뚜렷하고 현존하는 가야 산치자형 수하식을 가진 금귀걸이 중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례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세환식(細環式) 주고리에 2단의 중간식에 영락장식이 매달려 있고 격자형 원통형 금판으로 연결금구를 삼고 인(人) 자형 고리에 산치자형 수하식과 금알갱이로 마무리하였다. 이는 신라 금귀걸이의 중간식 형태와 가야의 산치자형 끝장식이 결합된 독특한 혼합양식으로, 6세기 가야 지역의 교류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크기와 형태에 있어 세부적으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고리 아래 중간식이 상하 2단으로 반복해서 4개씩의 구슬을 단 형식은 매우 독창적이다. 그리고 장식의 가장자리에 새김눈띠[각목대刻目帶]를 돌리거나 산치자의 아래쪽을 금알갱이로 마감해 세련된 감각을 보여준다. 옥전 M6호분 귀걸이처럼 금알갱이를 장식 끝부분에 붙인 예는 창녕 계성 A지구 고분, 고령 지산동 44-11호분과 45-1호분 귀걸이 및 합천 옥전 M4호분 귀걸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가야 지역에서 널리 쓰인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6세기 전반 합천 지역에서 제작된 금귀걸이의 특징을 잘 간직한 작품이자 가야 금속공예의 대표작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서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 본문



<지리전서동림조담> 표지



<지리전서동림조담> 권하 권수제



<백자 청화매조죽문 향아리>



<함안 마갑총 출토 말갑옷 및 고리자루 큰 칼>



①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중앙박물관 보관) ② 용봉문 고리자루 큰 칼 (김해박물관 보관) ③ 봉황문 고리자루 큰 칼 (경상대박물관 보관) ④ 용문 고리자루 큰 칼 (경상대박물관 보관)

<함전 옥전 M3호분 출토 고리자루 큰 칼 일괄>



<합천 옥전 28호분 출토 금귀걸이>



<합천 옥전 M4호분 출토 금귀걸이>



<합천 옥전 M6호분 출토 금귀걸이>